비전과 열정, 은혜 못 받은 증거

(예레미야 16:1~21)

10.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11.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12.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3.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비전과 열정, 은혜 못 받은 증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비전과 열정, 은혜 못 받은 증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은혜를 거절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설령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은혜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더라도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자로써 여전히 은혜를 받기 위해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어 하고 때로는 받았다고 여기는 그 은혜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이 은혜일까요? 사실 설교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면 십중팔구는 예화입니다. 목사님들께서 굳이 감동적인 예화만 찾아내시니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에 느끼는 공감이나 깨달음 동기부여가 은혜인 것일까요? 또는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기적적인 역사들이 은혜일까요? 예를 들어 병 고침이라든지 꼬였던 삶의 문제가 풀리는 경험을 하든지 걱정했던 문제가 형통한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희망을 주는 설교를 듣고서 미래에 대한 강력한 기대를 가지게 되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은 은혜를 받은 결과로 따라오는 부수물일 수는 있지만 은혜 자체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특이하게도 부정적인 측면에서 은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부정적이라니 참 낯섭니다. 우리는 그토록 은혜를 원하면서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비전 꿈 이상 소원과 같은 것들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곧 은혜 받지 못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은혜 받은 것을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낸 성경 구절을 찾아봅니다.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만 시편 23편 1~2절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양을 풀밭에 데리고 가셔서 풀을 뜯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입니다. 양은 이미 식사를 끝내고 되새김질을 하는 중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비전과 열정은 어디까지나 목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 곧 비전인데 목자는 푸른 초장을 마음으로 봅니다. 또 목자는 열정을 가지고 사자와 늑대들로부터 양을 지키며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과 열정을 가진 목자가 없는 양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양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비전과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작 양이 비전을 가진들 이룰 힘이 없습니다. 또한 푸른 초장과 같은 비전을 이룬다고 하여도 목자 없는 양은 사자나 늑대 앞에서 무력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곧 푸른 초장에서 배를 깔고 되새김질을 하는 양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비전과 열정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구체적으로 생각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 내용은 곧 내가 마음으로 바라보는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은혜와 정반대의 영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죽어도 은혜가 임할 수 없는 영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영적 구조를 유지하며 기도를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만 알아도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정확하게 은혜의 의미를 알고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십중팔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가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엉뚱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전혀 은혜 아닌 것들을 구하고, 은혜가 임할 수 없는 영적 구조를 유지한 채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0~13절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남 왕국 유다에 대한 멸망 예언을 계속할 때에, 백성들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이냐고 묻는 내용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있습니다. 요지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신을 주야로 섬긴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익숙한 말로 바꿔보면 열정과 근면과 성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은혜가 거두어졌다는 것입니다.
남 왕국 유다에 내려진 참담한 멸망의 원인은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의 정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은 대표적인 다른 신입니다. 또 19장 29절을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라고도 하셨습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가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에 더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놓고 보면 선민들이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리라는 말씀의 의미도 사뭇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주야로 열정과 성실과 근면을 다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다른 신으로 섬기게 되는 이유는 자녀가 마음의 공백을 채워주고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적으로 사업에 매진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다면 그 열정이 곧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자녀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능력을 동원하는 강남이나 분당의 부모들을 보면 절대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대기업의 회장님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은혜를 못 받은 증거로 세상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크게 보이기 때문이고 마음에서 제일 소중하고 실감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크고 무겁게 소중하게 실감나는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체감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배우자가 있을지라도 마음에서 더 우선시하고 현실로 여기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상태입니다.

은혜를 못 받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작고 가볍고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살아계심이 실감되지 않고 이론으로만 여겨져서 하나님에 대한 체감은 안개로 덮힌 것처럼 답답합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가치들은 확실하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 인기는 곧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의 힘을 뚜렷하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뚜렷하게 바라봅니다. 건강 문제를 우선적으로 실감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서 가족과 직장의 일을 중요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생겨난 착각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할수록 하나님은 작게 느껴지고 세상일들은 크게 느껴집니다.
목사님도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주야로 수적인 부흥만을 생각합니다. 주야로 예배당 건축만을 생각합니다. 주야로 재정이 넉넉해지는 방법만을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은혜 못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이고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못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새 아파트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에서 아파트를 뚜렷하게 보면서 하나님께 아파트를 달라고 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이 아파트라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마음에서 뚜렷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아파트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아파트가 마음에 뚜렷하게 보이는 이유는 아파트를 가질 때에 만족과 기쁨이 생길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마음에서 아파트가 희미해져서 안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뚜렷하게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집이 없는 현재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훨씬 더 강하게 체감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집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참 은혜를 구하면 내 마음에서 무관심해지고 희미해지고 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과 열정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의 현장에서조차 자기의 몸보다 돌로 치는 자들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뚜렷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자들이 사도로 변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은혜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다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겨우 수습이 되어서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에 대한 비전을 모두 잊어버리고 당당히 예수를 선포하는

사도로써 변모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본 자들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뚜렷하게 보고 확실하게 느낄수록 이 세상에 대한 비전과 꿈은 사라집니다. 설교에서 자주 언급되는 비전과 열정 같은 것들은 본래 복음에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목회에 대한 열정을 가지라니 누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차라리 몸을 떠나 지금 주님과 거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바르게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조건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선민들의 멸망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 멸망을 예언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금지명령을 내리십니다. 첫째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20살에 소명을 받았는데 결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둘째는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셋째는 잔칫집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간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만나 결혼하기 전에 그들은 각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인 결혼조차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마음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선민들에게서조차 이러한 결혼의 의미는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하는 순간 다들 배우자를 가장 크게 여기고, 자녀가 생기면 자녀를 가장 실감나는 존재로써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거두시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참으시고 경고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매도 드시면서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배우자보다 자녀보다 부모보다 재물보다 부디 하나님을 먼저보기를 바라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온전한 결혼생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생활에서 은혜는 배우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고 무겁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누구를 만날지라도 그보다 하나님을 더 크고 소중하고 무겁게 느낄 때에 온전한 인간관계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민들 중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주 대하는 사람을 가장 크게 여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론으로만 알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좁쌀만큼도 보이지 않고, 안개 속에 덥힌 것처럼 희미해져서 마음에서 전혀 체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의 이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크고 확실하게 무겁게 보는 상태였다면 인간관계는 은혜가 됩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처럼 원수들에게 둘러싸일지라도 그들에 대해 은혜로운 태도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귀에 들리는 대로

관계하면서 마음에서 하나님은 작아지고 대면하는 사람이 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민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시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인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또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반가워할 정도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삶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로 인해 지속됩니다. 해가 뜨고 비가 내리면서 농사짓고 삶이 지속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민의 땅인 가나안 복지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인자와 긍휼을 철수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인데 몸이 죽는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크고 무겁게 소중하게 우선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잃었는데 새삼스레 몸이 죽는 정도로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크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에 작은 슬픔은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나인 성 과부의 독자가 죽었을 때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요즘 과부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당시의 과부는 사회적으로 시체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래도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아들조차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나인 성 과부에게는 설령 나라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슬픔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한들 그것을 슬픔으로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기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철수시키면 육체의 죽음 따위는 슬픔의 이유조차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몸이 죽을 때에 함께 끝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몸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몸이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감하면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잔칫집을 가지 말라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철수시키시고 스스로를 가리셔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무슨 기쁨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채워질 때에 기쁨을 얻습니다. 또 마음은 하나님 크기로 지어졌기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철수시켜버리시면 진정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참 기쁨 또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동족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지만 더러는 기쁜 일이 있어서 예레미야를 초정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굳이 그러한 잔칫집에도 참석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대체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잔칫집에 초를 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초대를 받고도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에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돈 벌었다고 좋아할 때에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입니다. 못 먹는 호박 찔러보기라도 하는 못된 심보가 아니라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일에 그렇게 열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영혼의 죽음에 더욱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일류대학에 들어가서 기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오히려 큰일 났습니다. 자녀가 교만하지 않도록 밤새 기도해야 할 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기뻐하는 곳마다 가서 근심하고 걱정해야 할 일임을 상기시키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남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박해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 신앙인들을 정신이 나갔다고 욕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신이 나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야 말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이고 걱정해야 될 일입니다.

왜 자꾸만 하나님보다 돈이 크게 보일까요? 왜 자꾸만 하나님보다 가족이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집 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질까요? 하나님보다 내 건강이 더 크게 느껴진다면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몸에 병이 걸렸을 때에 병 낫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병 걸린 몸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은혜의 결과로 병이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목숨을 잃는다하여도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집이 없을 때에 집이 생기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집이 없는 상황보다도 더 크고 무겁게 하나님을 체감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야로 다른 신을 섬깁니다. 집을 섬기고 건강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배우자를 섬기고 자녀를 섬깁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것이 내게 기쁨이라 되리라 믿어서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 원죄의 체질을 가지게 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체질적으로 이 세상을 크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은혜 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음을 계속해서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크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은혜가 임할 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선민들의 문제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상번제를 생활화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괜히 어린 양을 아침저녁으로 한 마리씩 죽였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현장에서 세상이 크게 보일 때마다 이러한 마음을 어린 양과 함께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민들은 번제의 의미를 왜곡시켜버렸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 위한 뇌물로서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때에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라 세상일을 잊을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비전과 열정으로 움직여 나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열정과 비전의 하나님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 가는 와중에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나는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고 허리에 창을 받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쓴 채로 죽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은혜의 바다 속에 빠져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바라보고 이 세상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은혜의 바다에 빠져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